

광주일보 5·18 기록물 ‘디지털 정보’로 보존한다

5·18기록관과 업무협약... 1975~2002년 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1980년 당시 지역 유일 신문... "5·18연구, 진상규명에 활용할 것"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전남의 유일한 신문사로,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5·18관련 자료를 보유한 광주일보의 신문 기록물이 데이터베이스(DB)화 된다.

광주일보사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2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과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 DB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일보가 소장하고 있는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제작된 광주일보 신문 기록물이 전자기록으로 남겨 됐다.

5·18기록관은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18자료를 한데 모아 통합DB를 구축함으로써 진상규명과 5·18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1980년 당시 유일했던 광주일보의 신문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본사 10층에 1952년 창간호부터 1980년 5·18 당시 생생한

현장기록은 물론 이후 5·18 관련 특집기사까지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5·18연구자들은 광주일보를 직접 찾아와 당시 스크랩 된 신문기록물을 일일이 뒤져가며 찾아보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5·18 전후 광주·전남의 사회 흐름과 5·18 당시의 진실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5·18 당시 진상과 그 이후 진상규명에 광주일보의 취재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도 한뜻하고 있다는 것이 5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DB작업이 완료되면 광주일보가 보유한 풍부한 5·18 관련 자료는 물론 그 밖의 생생한 현장취재 기록을 일반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1989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연재한 '5·18...9년'은 5·18 진상규명의 교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기사뿐 아니라 매년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시리즈물과 각종 신문기록물도 전자기록에 담겨진다.

스크랩된 신문기록물들은 광주시 서구 상마지구 의 통합DB작업장으로 옮겨져, 평판 스캐너와 오버



광주일보사(회장 김여송)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홍인화)은 12일 오전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헤드 스캐너를 이용해 PDF자료로 제작된다. 이후 최신 기술인 AI-OCR(광학문자판독)작업을 거쳐 문자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기록관리시스템 및 대국민서비스용 전문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18기록관은 이 모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홍인화 관장은 "기록관의 꽃인 통합 디지털작업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광주일보의 기록물을 담게 돼 기쁘다"면서 "진상조사와 연구에 광주일보 자료가 소중한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송 회장은 "5·18 관련 자료를 비롯

해 광주일보사가 7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5·18의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돼 광주시민,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월부터 무안서 일본 운항 베트남·태국 등 8개 노선 검토

한국인 일본 무비자(사증 면제) 관광이 재개되면서 무안에서도 오는 12월부터 일본행 비행기가 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을 출발, 베트남·일본·태국 등 3개 국가를 오가는 국제선 8개 노선의 운항이 검토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항공편은 운항이 확정, 승객을 모집중이며 베트남 나트랑은 11월 16일부터 운항을 검토중이고 다낭·달랏행 전세기도 12월 1·15일부터 운항하기 위한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행 비행기는 오는 12월부터 운항이 예정돼 있다. 12월 3일에는 제주항공이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행 전세기를 띄우고 태국 방콕 노선도 같은 시기에 운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여행사 승객 모집 여부 및 국토부 승인 상황에 따라 세부 운항 일정도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무비자 관광이 재개되면서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4개월여 만인 올해 7월 14일 재개했으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42일 만에 다시 중단된 바 있다. 국내선은 제주·김포 등 2개 노선이 승무원 부족 등으로 주당 1회씩 운항 횟수가 줄었지만, 오는 12월부터 다시 증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전국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2500만 명 넘어 2년8개월만...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어 누적 2502만 5749명이 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국내 인구(5162만 8117명)의 절반가량(48.5%)이 확진 이력을 가진 셈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500만 명 돌파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사를 진료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에 검사야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안을 오는 17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확산세 진정에 따

라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는 비율도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3%로 전년(75.4%) 대비 9.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의 63.6%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19일~11월 12일까지 성인 2353명, 초등학생 1056명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초등학생의 손씻기 실천율은 69.6%로 성인에 비해 다소 높았다.

특히 방역당국이 강조하는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는 올바른 손씻기'를 한 경우는 성인 1.44%, 초등학생 1.23%에 불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공포대 주둔 전 무등산 천왕봉 사진 찾습니다" 고도 4m 짝인 1183m 확인...복원 앞두고 옛 모습 확인 필요

광주시가 방공포대 이전, 상시개방과 함께 추진하는 무등산 정상부 복원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1966년부터 방공포대 주둔으로 훼손된 최정상 천왕봉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천왕봉 등 무등산 정상에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기록물을 찾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2016년 11월 발표한 '무등산 군부대 주둔지역 복원 종합계획' 연구 결과에서는 1187m로 알려진 천왕봉이 4m가량 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구진은 무등산 정상부 군부대 안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장치를 설치하고 3차례에 걸쳐 천왕봉 해발 고도를 측

정한 결과 모두 1183m로 동일하게 측정됐다. 무등산 천왕봉의 공식 고도는 1930년에 작성된 지적도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기억하려고 광주에서는 1187년 시내버스가 도심과 무등산을 오가고 있다. 연구진은 과거 측정 기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정상부 훼손이 심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조만간 출범할 '무등산 시민의 품으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 등을 통해 기록물을 찾기로 했다.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민관협업체 활동을 뒷받침할 TF는 군부대 이전 추진반, 상시개방반, 정상부 복원반 등 3개 과제를 실무 절차를 논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 | |
|------------|----------|
| 963 - 9번지 | 264.8㎡ |
| 963 - 10번지 | 254.2㎡ |
| 963 - 11번지 | 225.8㎡ |
| 963 - 12번지 | 195.0㎡ |
| - 합 계 - | |
| 939.8㎡ 구 | (284.3평) |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자본감소공고

당사는 2022년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850,000,000원 중 841,500,000원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1,683,00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1,700,000주를 17,000주로 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 및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만약 이 기간까지 이의가 없으면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메디스토리동명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인석

분할합병 정정공고

2022년 09월 14일 제재된 주식회사 금강친기와 주식회사 금강산업의 분할합병공고 중 주식회사 금강산업이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원성도길111, 1층"으로 문장 어휘오류로 정정 공고함.

2022년 10월 13일

(가) 주식회사 금강친기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원성도길111, 1층 대표이사 정연수
(나) 주식회사 금강산업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원성도길111, 1층 대표이사 윤용하

산행안내

10월15일(토)
▲광주호산회 10월15일(토) (설악산 울림골) 오전 02시 30분 풍안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롯데백화점 03시1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지국안내

| 북구 |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
|-----|---|
| 동구 |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
| 남구 |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
| 서구 |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
| 광산구 |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천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